



3

국제 무대에 진출하다



1

역전경주대회와 육상경기 명문의 탄생

1923년 6월 3일 정오 경성부청(지금의 서울시청) 앞. 전국에서 모인 18개 중학교 대표주자들이 스타트라인에 섰다. 특히 서울의 명문 사학 휘문, 양정, 배재, 선린, 중앙, 보성의 선수들은 라이벌 관계를 의식한 탓인지 적잖이 긴장한 눈치였다.

청사 주변 대회장 거리에는 참가 학교 학생들과 구경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차다. 여기저기서 몸을 풀던 선수들이 속속 스타트라인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소리 없는 긴장감이 흐른 뒤 스타트를 알리는 신호가 떨어졌다.

거리를 메운 관중들의 함성과 함께 선수들은 당시 기차로 1시간 반이 걸린다는 서울~인천 레이스의 첫 관문을 쏜살같이 벗어났다. 레이스는 경성부청을 스타트해 영등포, 오류동을 거쳐 소사, 부평, 주안, 인천 해안통의 세관 앞까지 편도 6개 구간에서 펼쳐졌다. 한 팀에 6명의 선수가 차례로 1개 구간씩 이어달

001 김세호 논문, 2006, p20~21.

사진·양정



양정고보의 교내 마라톤대회 스타트 직전 참가 선수들의 모습.

리는 역전경주였다.

선수들은 저마다 모교의 명예를 위해 역주에 역주를 거듭했다. 경성일보사가 주최한 이 대회가 바로 우리나라 역전경주의 효시다.⁰⁰¹

역전경주(驛傳競走) 또는 역전경기라고 불리는 이 경기는 운동장 트랙이 아닌 거리에서 진행되는 장거리 레이스로 가장 빨리 들어오는 대로 순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마라톤과 유사하나, 장거리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마다 선수가 교대하여 뛰는 릴레이 형식인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식 명칭은 로드 릴레이(Road relay)이며, 역전(驛傳)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만들어져 일제강점기 한국에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1920년 호치(報知)신문사 주최로 도쿄~하코네 간 대학역전경주가 시작된 이래 큰 인기를 얻었고, 이어 오오사카~고베 간 중등학교역전경주가 열렸다. 이로부터 역전경주의 불이 현해탄을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밀어닥치자 경성일보사가 경인역전경주대회를 연 것이다. 초기에는 역전장거리경주, 릴레이장거리경주, 경인왕복역전경주, 역전마라톤 등 다

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수도 경성이 조선의 심장이라면, 그 연장선에 있는 인천은 서울의 발이라 생각하던 때여서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것은 큰 뜻이 있었다. 1923년 6월 3일 경성부청 앞을 스타트한 이 초유의 역전 레이스는 한강 인도교 준공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이기도 했다. 각 학교 응원단을 위해 인천까지 임시열차가 운행되었다.

첫 대회는 가슴에 P자를 달고 뽀 배재고가 우승을 했다. 기록은 2시간 41분이었다. 뒤이어 경성중학이 2위, 제일고보가 3위, 인천상업, 수원고등농림학교가 각각 4위와 5위를 했다. 양정고보는 여섯 번째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2년 후인 1925년 5월 16일 또 하나의 경인역전경주대회(경인릴레이)가 열렸다. 조선일보가 주최한 대회로 참가 자격은 중학 이상의 학교로 한정했다. 휘문, 양정, 배재, 선린, 중앙, 보성, 경기사범, 고등예비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등 9개교가 참가했다.

당시 양정고보에서는 학교 응원단이 임시열차 편으로 스타트 지점인 인천으로 떠나는 등 대회 열기가 뜨거웠다. 코스는 인천세관 앞~광화문 체신국 앞(25마일 63)을 6개 구간으로 나눈 것이었다. 인천에서의 스타트 시간은 오후 2시 30분. 마침 토요일이어서 경성 도착 예정 시간인 오후 5시경부터 피니시라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꽉 메웠다.

양정의 최종 주자 강찬격이 2시간 36분 37초 5분의 1로 들어와 우승했다. 2년 전 우승한 배재는 이보다 9분 늦게 도착했다. 시상식은 오후 5시 30분경 최종 주자가 도착한 뒤 대회장이던 이상재에 의해 법학전문학교에서 이뤄졌다.⁰⁰²

⁰⁰² 김광희, 2001, p120~121.



중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서 원반던지기를 하는 모습.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920년대로 추정된다.

1920년대 대회를 석권한 양정 육상경기부

1925년 5월 이후 경인역전경주는 한동안 대회가 중단됐다가 1930년 양정고보 육상경기부 감독으로 활동하던 미네기시가 조선체육협회 주사로 부임하면서 조선체육협회 주최 대회로 부활해 3년 동안 열렸다. 대회는 서울~오류동(제1구간), 오류동~부평(2구간), 부평~인천(3구간)으로 하고 같은 구간을 왕복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체육협회 주최 첫 역전경주대회에서 최경락, 조인상, 김진배, 오정근, 전정복, 김은배가 뽀 양정고보가 우승을 했다. 양정은 1931년 2회 대회에는 유해봉, 조인상, 김진배, 오정근, 함병문, 김은배가 뛰어 다시 우승을 했고, 3회 대회도 철도국과 총독부 등 관청팀의 견제 속에서 6개 구간 모두 양정 선수가 1위를 하며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3회 대회 우승의 주역은 남승룡, 조인상, 성병문, 손기정, 유해봉, 김은배 등 당대 최고의 장거리 선수들이었다.

그러나 양정이 우승을 독차지하자 이 대회는 한 해를 거르면서 중지설이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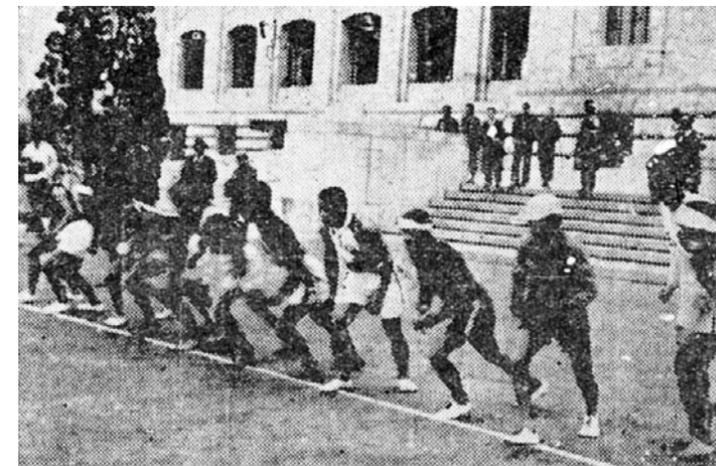
더니 1934년 전조선육상경기연맹 주최로 코스도 경성부청 앞에서 스타트하는 것으로 변경해 다시 시작했다. 그러면서 양정고보의 4연패를 막기 위해 체신국, 철도국, 총독부 등 각 관청의 선수들을 차출해 경성실업팀을 급조하여 이들이 우승까지 거머쥐자 차후 참가 단체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1935년 대회부터는 전조선육상경기협회 주최로 열려 다시 양정고보팀이 우승을 했고, 1936년과 1937년에는 유장춘이 맹활약한 체신국이 내리 우승을 했고, 1938년에는 철도국 오동우와 체신국 유장춘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철도국이 우승해 그 기세를 다음해 대회까지 이어갔다. 1940년에는 평양팀이 우승을 했다. 이 대회는 194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양정을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 간 조인상(와세다 대학), 김은배(메이지 대학)는 호치신문 주최 도쿄~하코네 간 역전경주에 참가해 활약을 했다.

1931년 3월 21일에는 고려육상경기회가 조선체육회와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경성~영등포 간 왕복 14마일 반을 달리는 제1회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코스는 광화문 동아일보사 정문 앞을 스타트하여 영등포역 앞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 스타트라인으로 되돌아오는 것. 이를 흔히 경영京永(광화문~영등포 23.2km)대회라고 한다.

고려육상경기회는 1929년 6월 28일 서울 중앙예배당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발족했다. 중학을 졸업한 선수들로 조직된 친목단체로, 초대회장은 주홍근이었다. 육상경기계 원로인 유장춘에 따르면 고려육상경기회의 사무실이 종로 1가 옛 신신백화점 옆 한경선 양화점에 있었다고 한다. 한 씨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세계를 제패하자 평생 구두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한 장본인이다.⁰⁰³

⁰⁰³ 동아일보, 1975년 3월 22일자.



⁰⁰⁴ 1936년 전조선육상경기연맹 주최 경인역전경기의 스타트 모습. 동아일보 1936년 3월 22일자 게재 사진.

고려육상경기회 주최의 경성~영등포 간 제1회 마라톤대회는 육상경기 왕국으로 불리던 양정고보의 김은배, 조인상, 유해봉, 김정복을 비롯하여, '조선 마라톤의 왕'으로 꼽히던 이성근, 또한 장거리 기록 보유자인 변용환 등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특히 이 대회는 그해 4월 3일로 예정된 경인역전경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선수들의 기록 경쟁이 치열했다. 이 대회에서 양정고보의 김은배가 2시간 22분 5초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해봉, 이성근, 변용환, 최경락, 조인상 등 조선인이 차례로 6위에 입상했다.

1932년 제2회 대회 때에는 변용환이 1위, 신의주에서 원정 온 20세의 신예 손기정이 2위에 올랐고 백규복, 황자룡, 유준섭, 김병천 순이었다. 제3회 대회에서는 양정고보로 옮긴 손기정이 1위로 들어오고 유해봉, 남승룡, 황자룡, 김계선, 김두인이 뒤를 이었다.

1934년 제4회 대회에서는 체신국 소속의 유장춘이 1위를 한 데 이어 25초 늦게 들어온 양정의 손기정이 2위를 했다. 이어 안삼진, 이종진, 김성학, 정원복



양정고보 육상경기부와 학교 관계자들이 1926년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 우승 직후 기념촬영을 했다.

순으로 입상했다. 이 대회는 10회 대회까지 계속됐고, 동아마라톤으로 이어져 오늘날 서울국제마라톤대회로 발전했다. 그러나 1938년 중일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족진영에 대한 일제의 압박이 더욱 심해졌고, 그해 7월 조선체육회가 해산되면서 고려육상경기회도 해체되었다.

1935년부터 1941년까지 계속된 조선학생육상경기연맹 주최의 조선전문대학 경수(京水)역전경주대회는 전문학교 학생에게만 참가 자격을 주어 일명 '전문역전'으로 불렸다. 첫 대회에 경성대, 고등공업학교, 수원고학교, 보성전문, 치학전문학교, 고등상업학교, 법학전문학교, 약학전문학교 등 8개교가 참가했다. 제1회 대회 코스는 수원 화홍문에서 경성 남대문까지 4만 460m 거리를 5구간으로 나누어 뛰는 것이었다. 첫 대회는 보성전문이, 제2회 대회는 경성치과의학전

문학교가 우승을 했다.

이 무렵 양정고보 육상경기부에는 '조선 육상경기계의 젊은 주인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조선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다.

양정 육상경기부는 1921년 4월 일본의 유명 마라톤 선수 출신 미네기시가 체육교사로 부임하면서 그 해 봄 창단됐다. 창단 직후 조선체육회가 주최한 대회에 5명의 선수가 처음 참가해서 이 가운데 이종원은 장래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다.

미네기시의 지도를 받게 된 양정 육상경기부는 대열을 지어 방과 후 삼각지에서 한강로를 달리고 한강 인도교를 건너 노량진에 이른 다음 간 길을 되돌아 학교로 돌아오기를 연중 되풀이했다. 이를 통해 양정의 경기력이 강해져서 각종 육상경기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창단 2, 3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1923년 11월 8일 연희전문학교 주최 제2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에서 우승했다.⁰⁰⁴

특히 단거리에서 중·장거리에 이르기까지 중등 패권을 대부분 휩쓰는 놀라운 기세였다. 양정 육상경기부는 연례 행사로 실행돼 온 경인역전경주대회에 참가해 매년 우승했는데 대회 때마다 대항할 팀이 없어 조선체육협회는 이 경기를 중단시켰다. 이런 와중에 조선체육협회는 총독부팀과 용산 철도팀, 백마육상경기부 등 일반 사회팀이 발전을 보여 양정고보와 대항할 만하다고 여겨 새 우승기를 만들고 경인역전경주를 재개했다. 그러나 참가팀 중 유일한 학교팀인 양정고보가 우승을 하고 또다시 전 조선의 패자가 되었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대적할 팀이 없자 양정 육상경기부는 일본으로 원정을 나

⁰⁰⁴ 양정 100년사, p112.

양정 출신의 육상경기 스타 김은배



1932년 김은배의 모습.

서울 토박이인 김은배(1907~1980)는 광화문 네거리 인근 미곡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대한문(덕수궁 정문) 옆에 있던 정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3월 종로구 연지동의 경신고보(5년제)에 진학했다.

입학하고 두 달 후인 5월, 서울운동장을 스타트해 청량리를 왕복하는 교내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학교 연례 행사로 열린 이 대회에서 갓 입학한 김은배는 전교 3등으로 피니시라인에 들어왔다. 1학년생이 상급생들을 물리치고

전교 3등으로 입상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날 김은배의 3등 입상을 눈여겨 본 사람이 있었다. 3년 선배로 정구선수로 이름을 날리던 4학년생 장태형이었다. 그는 이후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체육전문학교에 진학해 2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해 광복 후 공주사범대학 체육교수를 지냈다.

장태형은 김은배의 달리기 소질을 간파하고 장거리에 강한 양정고보로 전학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애초 자신이 김은배를 키울 욕심을 품었다. 그런데 경신은 축구와 정구에 강했고 상대적으로 육상경기는 장려하는 편이 아니었다.

게다가 당시 양정에는 김은배의 두 살 위 형인 김진배가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장거리 유망주로 육상경기부 선수였다. 장태형은 아는 사이인 양정 육상경기부 주장 김정복에게 김은배를 받아들일 것을 권했다. 김정복은 1928년 여름방학 동안 김은배를 양정고보로 불러 자세히 관찰했다.

그가 크게 자랄 선수로 판단되자 양정의 육상경기부장인 일본인 체육교사 미네기시에게 김은배를 받아들일 것을 부탁했다. 역시 이를 알아 본 미네기시는 미완의 대기 김은배를 받아들여 조련에 나섰다.⁰⁰⁵



1930년 1월 12일 일본에서 열린 오사카~고베 역전경주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양정고보 육상경기부원들. 뒷줄 왼쪽부터 미네기시 감독, 이면훈, 함병문, 오정근, 김진배, 앞줄 왼쪽부터 조천상, 김은배, 문병국. 동아일보 1930년 1월 16일자 게재 사진.

가기 시작했다. 간사이 대학 주최 오사카~고베(약 57.9km) 역전경주는 일본의 우수한 중등학교들이 모여 불꽃 튀는 접전을 벌여 전 일본의 패자를 가름하는 대회였다. 양정은 1929, 1930년 연속으로 이 대회에서 우승한 데 이어 1931년 대회에서 또다시 신기록을 작성하며 일본의 17개교를 제압하고 3연패의 개가를 올렸다. 이후 양정은 1932년 4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제13회 도쿄~요코하마 왕복 45마일 역전경주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일본 원정팀 감독은 양정고보 졸업생인 서웅성으로, 그는 원래 일본비행학교를 졸업한 비행사였으나 다시 일본체육학교를 졸업하고 1931년 모교에 부임한 신입 감독이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치러진 도쿄~요코하마 역전경주에서 1~7구간을 양정의 남승룡, 김유

005 양정 100년사: 조동표, 육상 개척기의 영웅들, <월간 시민체육>, 2009년 3월호 참조

수, 김국태, 조인상, 손기정, 유해봉, 김은배가 차례로 뛰어 일본의 28개교를 물리치고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했다.

조선의 중·장거리 석권한 김은배

이로써 양정은 일본 원정 경기에서만 내리 4년을 승리했다. 당시 양정팀 주자는 남승룡, 김유수, 김국태, 손기정, 유해봉 등이었고 손기정은 양정고보 1학년의 신예 선수였다.⁰⁰⁶ 이처럼 양정이 여러 대회를 휩쓰는 가운데 이 학교는 걸출한 스타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주인공은 1929년 3월에 경신에서 양정 2학년생으로 전입한 김은배다.

양정이 우승한 첫해인 1929년 오사카~고베 역전대회에 김은배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1929년 6월 양정의 교모를 쓰자마자 제5회 전조선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해 1500m에서 우승했다. 같은 해 10월에 열린 조선신궁대회 1만m에서는 2위에 입상했다.

두 대회 모두 학생, 일반의 구별이 없는 전 조선 규모의 경기대회였다. 여기서 김은배는 15세 소년의 몸으로 벌써 성인들과 겨뤄도 뒤지지 않는 실력임을 당당히 드러냈다. 해를 넘겨 3학년이 된 김은배는 1930년 1월 12일 열린 간사이 대학 주최 제6회 중등학교 오사카~고베 왕복역전경주대회(39개교 참가)에서 7개 구간으로 나뉜 코스의 세 번째 구간을 역주해 우승에 기여했다. 양정의 총기록은 3시간 26분 40초로 1929년 같은 대회에서 기록한 3시간 29분을 2분가량 앞당겼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김은배의 형인 김진배가 제6구간을 달려 형제가

⁰⁰⁶ 같은 책 p181.

⁰⁰⁷ <월간 시민체육>, 조동표, 3·4월호.



⁰⁰⁷ 1930년대 조선 육상경기계의 총아였던 양정고보 팀.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손기정, 뒷줄 맨 오른쪽이 남승룡이다.

우승에 기여했다.⁰⁰⁷ 그의 역주는 거침이 없었다. 같은 해 김은배는 조선 13도 대항으로 열린 제6회 조선신궁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5000m 2위, 1만m에서는 우승을 했다.

이로써 김은배는 1929년과 1930년에 걸쳐 중거리와 장거리에 뛰어난 경기력을 지녔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의 1931년은 첫머리부터 빛났다. 이미 두 대회를 연거푸 우승한 양정 육상경기부는 일본육상경기연맹이 새해 첫 사업으로 펼친 1월의 오사카~고베 역전경주대회 3연패를 노리며 참가했다.

팀의 최종 주자로 나선 김은배가 배턴을 이어받았을 때 양정은 2위였다. 앞선 팀은 우수 선수들을 망라했다는 간사이 중학이었고 그들과의 거리 차는 약 110m. 김은배는 바통을 받자마자 힘차게 달려 시소 레이스를 펼치며 피니시라

육상경기 명문 라이벌 - 배재 vs 양정

경쟁과 오심은 종종 화를 부른다. 1938년 전국중등학교대항선수권대회는 당시 육상경기 명문 양정고보와 배재고보 두 학교의 각축전이었다. 이 대회에는 전 일본중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 출전권이 걸려 있었다.

《양정 100년사》에 따르면 두 학교의 열띤 경쟁 속에 잇따라 경기가 끝나고 마지막 4×100m 릴레이 레이스로 대회 전체 우승팀이 판가름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숨 가쁜 순간 스타트라인에서 양정의 이경의에게 일본인 심판은 두 차례나 부정스타트를 줬다. 이윽고 스타트신호가 터지자 3차 스타트라인에 선 8명의 선수들이 달려 나갔다. 이경의가 1등으로 들어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배재 쪽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양정 이경의가 3차 때도 부정스타트를 했다는 것이었다. 대회본부가 이를 받아들여 하자 양정 쪽의 반발을 부른 것은 물론이었다.

30분이 지나고 대회본부는 양정의 우승을 선언하고 우승기를 수여하다. 그런데 본부의 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동문과 재학생들이 몰려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일본위원들은 경기장 소란죄를 들먹이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다시 일반 관중들이 합세해 대항하자 당황한 육상경기협회는 양정을 소란죄로 몰아 일본 원정경기를 중지시키려 했다. 양정학교 측에서는 오랜 논의를 벌였다. 소란죄를 빌미로 일본인들이 모든 경기에 양정의 참가정지 명령을 내릴 것이 뻔했다. 학교 측은 참가정지를 당하느니 우승기를 반환하는 길을 택했다. 이튿날 교사 서용성과 육상경기부원 몇 명이 협회로 찾아가 사과하고 우승기를 반납했다.

양정의 맞수, 배재 육상경기부는 1920년에 창단된 이래 각종 대회에서 이름을 높였다. 특히 배재는 1938년 8월 전일본중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전년에 이어 석권해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호외를 낼 정도로 화제가 됐다.

앞서 양정을 누르고 참가한 1937년 8월 도쿄 대회에서는 당대의 스프린터 김유택이 10초 7의 대회 타이 기록으로 우승한 데 이어 4×100m 릴레이에서 김유

택, 박양배, 임기수, 인강환 등이 44초 4로 피니시 테이프를 끊었다. 해머던지기에서도 인강환이 45m 72를 던져 대회신기록을 작성했다.

배재는 역전경주에서도 돋보였다. 1938년 1월 오사카~고베 역전경주에서 오창준, 김익준, 이종록, 정관욱, 정연희 등이 이어 달려 우승을 차지해 육상경기 명문학교의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인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선두로 나서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양정은 전설적인 3연패를 달성하고 전교생의 환영 속에 서울역으로 개선했다. 다음은 당시 김은배의 레이스를 숨 가쁘게 지켜보던 양정 육상경기부 미네기시 감독의 기록이다.

‘선두 간사이 중학보다 약 110m 뒤져 바통을 받은 김은배는 여기서부터 라스트스테이지인 만큼 격렬한 변화를 연출했다. 고조 중학이 다시 선두로, 선두였던 간사이 중학은 다소 피로해 양정의 뒤로 처져 피니시라인까지 약 3분의 2지점에서는 선두 고조와 양정의 차는 약 400m 정도 떨어졌고, 간사이 중학은 바로 양정 뒤를 따르는 등 형언할 수 없는 장면을 이뤘다. 김 군은 이윽고 피니시라인이 1마일가량 남았을 때 단연 선두의 앞을 빼앗고 말았다. 이 극적인 시소 레이스에서 고조 중학을 앞서기까지의 200m 격전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이 숨 막히는 일대 접전 끝에 영예의 1착을 획득했다.’ 008

008 《양정 100년사》.

2

떠오르는 마라톤 강국

마라톤 하면 우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을 떠올린다. 하지만 손기정 이전에 한국의 육상경기는 이미 세계적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인으로서 마라톤 첫 공식기록을 낸 인물은 마봉옥이다.

그는 1927년 10월 오늘날 전국체전과 유사한 제3회 조선신궁대회에서 3시간 29분 37초(26.25마일)로 우승을 차지해 한국 마라톤 코스 첫 공식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이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마라톤 코스는 이랬다.

우선 경성운동장에서 동대문, 청량리를 지나 망우리 고개 밑에서 되돌아 동대문에서 종로, 의주로를 거친다. 그런 다음 신용산 전차 종점(지금의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한국은행 앞을 통과한다. 이어 을지로 입구에서 광화문을 거쳐 왕십리 소학교 앞에서 되돌아 또다시 광화문을 통과, 경성운동장으로 귀환한다.⁰⁰⁹

한국 마라톤의 첫 공식기록은 이듬해 같은 대회에서 다시 마봉옥에 의해 30분 이상 앞당겨진 2시간 57분 34초로 바뀌었다. 마봉옥은 앞서 같은 해 열린 제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대회 조선 예선에서 3시간 15분대로 우승했지만 세계기

록에 미치지 못해 대표 선발에서 제외됐다. 이어 인력거를 끌던 이성근이 1930년 10월 2시간 36분 50초의 최고기록을 세웠다.

정규 마라톤 4년 만에 1시간 단축

한국 마라톤에서 2시간 30분의 벽은 1931년 17세의 고교생 김은배에 의해 깨졌다. 정규 마라톤이 실시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김은배는 1시간여를 단축하며 조선 육상경기계의 위세를 안팎에 과시했다.

김은배는 이미 1930년 1만m 연습경기에서 33분 38초 3으로 조선신기록을 작성했다. 1931년 일본육상경기연맹은 경성운동장과 오류동을 왕복하는 마라톤 코스를 공인했다. 그 공인 코스에서 벌어진 1931년 10월 18일 제7회 조선신궁대회 마지막 날, 마라톤 경기에 김은배가 참가했다. 그의 생애 처음 달리는 마라톤이었다. 그는 경기 초반부터 선두로 나서 바람을 가르듯 질주했다. 결과는 우승. 그것도 2시간 26분 12초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당시 일본기록 2시간 35분 29초, 조선기록 2시간 36분 50초는 물론 앞서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마라톤에서 프랑스의 부에라 엘 우아피가 작성한 우승기록 2시간 32분 57초를 큰 폭으로 단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록은 공인 코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계기록으로 인정되지 않고 조선기록으로만 인정됐다. 아무튼 김은배는 2시간 20분대에 진입한 첫 선수로서 당시 세계기록을 앞당기는 쾌거를 일궈 냈다. 이에 따라 그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돼 조선체육회, 조선운동기자단, 고려육상경기회, 양정고보 동창회에

⁰⁰⁹ 김세호 논문, 2006, p22.

마라톤 레이스의 유래

마라톤 레이스는 흔히 기원전 490년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의 마라톤 평원 전투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아테네 동북방 40.2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대전투를 벌여 결국 아테네군이 승리했고 한 병사가 40여km 떨어진 아테네 아크로폴리스까지 달려가 “우리가 이겼다.”고 말한 뒤 쓰러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설에 불과하다. 당시 마라톤 전투를 자세히 기록한 헤로도토스(BC 484~425?)의 《역사》 책 어디에도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4 세기가 지난 후 플루타르크가 쓴 마라톤 전투에 관한 기록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전설은 마라톤 전투가 끝난 뒤 600년이 지난 기원후 2세기 때의 작가 루키아노스에 의해 비로소 처음 언급된다.

아테네까지 달려간 병사의 이름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 많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페이디피데스는 페르시아군이 마라톤 평원 근처 해안에 상륙하자 아테네군 사령부가 150마일(241.4km) 떨어진 스파르타에 긴급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병사 이름이다. 그는 꼬박 이틀 동안 달려 스파르타에 도착해 원병을 요청했지만 스파르타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틀 동안 150마일을 달려가서도 끄떡없었던 페이디피데스가 전투가 끝난 뒤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아테네까지 40km를 달린 뒤 쓰러졌다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일부에선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 평원에서 스파르타까지 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달렸던 내용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마라톤 거리가 241.1km가 돼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이런 전설이 없었더라도 마라톤은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달리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달리기의 심리학》이란 책을 쓴 빌리 켈러는 “인간의 육체는 100km 이상의 장거리를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으며, 달리기에 알맞도록 힘을 비축할 수 있다. 인간은 원래 달리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한다.

1896년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근대 올림픽대회에서 이 마라톤 전쟁의 고사를 스포츠로 승화시켜 마라톤이 첫선을 보였다. 스피리돈 루이스Spyridon Louis라는 그리스 양치기 목동이 첫 우승(2시간 58분 50초)을 차지했다. 사실 그는 올림픽 대회 참가 티켓이 걸린 국내 예선에서 탈락했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의 실력자였던 어느 육군 대령의 강력한 추천으로 올림픽 대회에 가까스로 나올 수 있었다. 어느 날 강연을 하려던 그 대령은 그만 안경을 집에 놔두고 온 것을 알았다. 그 대령은 눈이 나빠 안경이 없으면 원고를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스피리돈 루이스가 강연 장소에서 22km나 떨어진 그 대령의 집에 뛰어가서 안경을 가져왔다. 결국 이것이 인연이 돼서 올림픽대회에 나갈 수 있었다.

스피리돈 루이스는 우승을 한 후 그리스의 영웅이 됐다. 그리스에서 내로라하는 부잣집 딸로부터 청혼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양치기로 돌아갔다. 시끄럽고 번잡한 도시 생활이 영 몸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마라톤 거리가 42.195km로 결정된 것은 제4회 런던 올림픽대회부터다. 처음에는 스타트 지점을 주경기장으로 해 42km로 했으나 스타트 지점을 여왕이 있는 원저궁으로 바꿈에 따라 거리가 195m가 더 늘어났고 이후부터 42.195km로 굳어졌다.

서 특별상을 수여했고 윤치호, 송진우 등 당대 거목들이 축사를 했다.⁰¹⁰

동아일보는 대회 이틀 뒤인 1931년 10월 20일자 ‘세계기록 돌파 조선의 자랑’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씨 왕조가 조선 민족을 세계의 벽지에 유폐된 은자로 만들었으나, 스포츠가 이를 바꿔 놓아 그의 기록은 조선인의 천품상 또는 기질상의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⁰¹⁰ 정희준, 2009, p24.

1931년 10월 김은배는 조선체육협회 추천으로 도쿄에서 열린 메이지신공마라톤대회⁰¹¹에 참가했다. 그는 이 대회에서 2시간 34분 58초로 2위를 했다.

한편 1927년 공식화된 마라톤 이래 조선체육회는 1933년 조선중앙일보 후원으로 조선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제1회 대회에는 3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선중앙일보 앞(현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참가해 경원가도를 내달리면서 시작됐다.

망월사 입구(도봉산 입구)에 반환점을 마련한 이 대회에서는 충주의 안성학이 2시간 46분 38초로 우승했다. 당시는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둔 김은배, 권태하 두 선수의 영향을 받아 마라톤 열기가 고조되던 때였다. 특히 김은배 시대의 개막과 함께 조선의 마라톤은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붐을 맞게 되었다.

한국 마라톤 여자 기록 변천사

기록	선수	소속	대회 날짜	대회
3:00:16	임은주	조폐공사	1981.11.01	제35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2:47:03	임은주	조폐공사	1982.1.24	오사카국제마라톤
2:44:48	최경자	산업기지	1983.1.30	오사카국제마라톤
2:39:51	임은주	조폐공사	1983.10.23	해밀턴국제마라톤
2:38:47	최경자	산업기지	1984.1.19	오사카국제마라톤
2:32:40	김미경	한국전력	1987.4.13	제2회 월드컵마라톤
2:30:09	오미자	쌍방울	1996.3.24	동아국제마라톤
2:26:12	권은주	무소속	1997.10.16	제5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⁰¹¹ 일본체육회 주최의 메이지신공경기대회는 1924년부터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실시되었다. 우리 선수들은 1931년 제6회 대회까지 전혀 참가하지 않았으나 1933년 10월 제7회 대회에 처음으로 각 종목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선수를 파견했으며 이후 대회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올림픽대회로 통하는 길은 일본대표로 뽑히지 않는 한 열릴 수 없는 숙명이었기 때문이다. - 김광희, 2001, p230.

한국 마라톤 남자 기록 변천사

기록	선수	소속	대회날짜	대회
3:29:13	마봉옥	경성	1927.10.15	제3회 조선신공대회
2:57:34	마봉옥	경성	1928.10.13	제4회 조선신공대회
2:39:57	이성근	경성	1929.10.13	제5회 조선신공대회
2:36:50	이성근	경성	1930.10.11	제6회 조선신공대회
2:26:12	김은배	양정고보	1931.10.10	제7회 조선신공대회
2:25:14	손기정	양정고보	1935.4.27	제1회 조선선수권대회
2:24:55	임종우	특무대	1957.4.20	제61회 보스턴마라톤
2:24:07	이창훈	중앙대	1959.9.28	인천~서울간 국제마라톤
2:23:56	김연범	석유공사	1962.10.25	제43회 전국체육대회
2:21:54	이상훈	한국전력	1963.10.27	도쿄 올림픽대회 예선
2:21:25	이상훈	한국전력	1964.6.13	제18회 전국선수권대회
2:21:21.6	이명정	한국전력	1965.3.07	제36회 동아마라톤
2:20:19.2	김복래	석유공사	1965.5.04	제19회 전국선수권대회
2:19:07	김복래	석유공사	1966.3.13	제37회 동아마라톤
2:18:18	박봉근	해군	1969.10.28	제50회 전국체육대회
2:17:34.4	김차환	한국전력	1970.3.22	제41회 동아마라톤
2:17:01	김차환	한국전력	1973.3.25	제44회 동아마라톤
2:16:26	조재형	대한주정	1974.2.03	제6회 교토마라톤
2:16:15	문흥주	건국대	1974.3.24	제45회 동아마라톤
2:14:59	이홍렬	경희대	1984.3.18	제55회 동아마라톤
2:14:06	유재성	한국체대	1986.3.16	제57회 동아마라톤
2:12:21	이종희	제일제당	1987.3.15	제58회 동아마라톤
2:11:34	김완기	코오롱	1990.3.18	제61회 동아마라톤
2:11:02	김완기	코오롱	1991.11.03	제45회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2:08:47	황영조	코오롱	1992.2.02	제41회 빗푸~오이타마라톤
2:08:34	김완기	코오롱	1994.3.20	동아국제마라톤
2:08:09	황영조	코오롱	1994.4.18	보스턴마라톤
2:07:44	이봉주	코오롱	1998.4.19	로테르담마라톤
2:07:20	이봉주	무소속	2000.2.13	도쿄마라톤

3

국제 무대에
진출하다

1930년대 들어 한국 선수들의 해외 원정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선수들이 처음으로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것은 1932년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열린 제10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다. 그러나 이때는 일본 선수로 참가한 것이어서, 대한민국 선수로 첫 올림픽 참가는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이다. 일본은 이미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대회부터 대회 선수단을 파견해 왔다.

제3회 올림픽대회까지는 자유 참가가 허용됐으나 1908년 제4회 런던 대회부터는 각 나라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구성한 선수단이 그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참가해야만 했다.

따라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실정으로는 일본대표로만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선수 선발 권한은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갖고 있어 우리 선수들은 조선 예선을 통과해야 참가할 수 있었다.⁰¹²

이런 상황에서 조선체육회가 우리 선수들에게 도쿄 메이지신궁대회의 참가를 종용하고, 기왕이면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은 고육책이었다. 동시에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했다. 더구나 메이지신궁대회는 세계 무대에

서려면 조선의 예선을 통과한 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선발전이였다.

제10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 조선 예선

1932년 5월 제10회 LA 올림픽대회 참가 선수를 뽑기 위한 1차 조선 예선대회 겸 조선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 1만m 장거리 경기에서 양정고보 선후배인 김은배와 손기정이 각축을 벌이다 김은배가 1위, 손기정은 2위를 했다. 5000m에서는 손기정이 16분 3초 2로 조선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해 도쿄에서 열리는 제2차 올림픽 예선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마라톤에서는 권태하가 2시간 35분 12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러나 권태하는 하마터면 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뻔했다. 이 대회를 이틀 앞둔 1932년 5월 6일 오후, 권 선수는 경성의 황금정(을지로) 네거리를 달리며 연습을 하던 중 일본인 순사로부터 정지신호를 무시했다며 구타를 당했다. 이 소식을 듣고 조선체육협회가 곧장 경찰서를 방문해 항의를 했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 당시 언론은 메이지 대학 육상경기부 주장이며 이번 조선 예선대회에 1만m와 마라톤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육상경기 장거리 종목의 권위자인 권태하 선수가 연습 중 일본 순사에게 부상을 당해 참가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애석하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권태하는 다리 부상을 무릅쓰고 이틀 뒤인 5월 8일에 열린 조선육상경기선수권대회 마라톤에 참가했다. 권태하는 경기장에 입장할 때 코스를 잘못 알고 150m가량을 더 달렸음에도 2시간 35분 12초의 기록으로 우승

⁰¹² 조선체육회는 국제 무대를 향한 선수 양성을 위해선 '경쟁의 논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조선체육협회 주최 대회에도 선수들의 참가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올림픽대회 예선이나 세계선수권대회, 극동올림픽대회 등 굵직한 대회에 참가하려면 조선체육협회를 거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는 실정이었다. - 김광희, 2001, p218~219.

을 차지했다.

그런데 1931년 조선신궁대회 마라톤에서 2시간 26분 12초로 조선신기록을 세운 김은배는 정작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는 김은배를 훈련시킨 미네기시 감독의 용의주도한 전략이었다.

1932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김은배의 훈련에 주력하던 미네기시는 10년간 재직한 양정고보 육상경기부 감독직을 사직하고 조선총독부 관할의 조선체육협회 주사로 자리를 옮겼다. 미네기시가 조선의 아마추어 스포츠를 관장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다.⁰¹³

이 무렵 LA 올림픽대회 최종 예선에 참가할 선수를 뽑기 위한 조선육상경기 선수권대회가 경성에서 열렸다. 1932년 5월 8일 경성운동장을 스타트해 오류동까지 왕복 코스에서 치러진 마라톤에 당초 양정고보 5년생인 김은배가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네기시는 김은배를 체력 소모가 큰 마라톤에 참가시키지 않고 1만m에만 참가하게 했다. 김 선수가 조선 예선 마라톤에서 뛰고 불과 20일 후 도쿄에서 열리는 최종 선발대회에 또 참가할 경우 체력이 떨어져 예선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네기시의 권유에 따라 조선 육상경기계는 김은배를 추천 선수로, 예선 없이 도쿄 최종 선발대회에 참가시키기로 했다.⁰¹⁴

결국 1932년 조선 예선에서 마라톤 우승의 영예는 혜성처럼 등장한 권태하에게 돌아갔다. 그는 휘문고보를 나와 일본 메이지 대학에 유학 중이었다.

⁰¹³ 양정 100년사.

⁰¹⁴ 김세호 논문, 2006. p25.



▲ 오사카~고베 역전경주대회 3연패를 이룬 양정 육상경기부. 이 대회에서는 김은배의 역주가 우승의 원동력이었다.
 ◀ 손기정(왼쪽)과 남승룡.
 ▶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딴 남승룡.

남승룡-131

일본 최종 선발대회에서도 1위를 한 권태하

1932년 5월 25~29일 LA 올림픽대회 파견 선수 최종 선발대회(제19회 전일본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도쿄 신궁외원(神宮外苑) 경기장에서 열렸다. 25일에 열린 마라톤에 3시간 30분을 돌파했다며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즈키(鈴木), 미국의 마라톤 코스를 답사하고 돌아온 쓰다(津田), 종래 일본 기록 보유자인 구스모토(楠本) 등 일본의 최고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대회 전부터 치열한 한일전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마라톤 우승은 조선의 권태하 선수에게 돌아갔다. 권태하가 2시간 36분 49초 6으로 1위, 김은배가 2시간 37분 56초 2로 2위를 하여 올림픽대회 참가가 결정되면서 일약 '마라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또 조선인 이귀하가 2시간 39분 48초 8로 5위를 했다.

마라톤 경기는 마지막까지 앞치락뒤치락 선두가 뒤바뀌어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초반에는 구스모토 선수가 선두로 나섰고 이귀하, 쓰다, 김은배, 권태하 등이 2그룹을 형성했다. 그러나 반환점에서는 다카하시(高橋) 선수가 선두로 나오더니 바로 뒤이어 조선 선수들이 반환점을 돌았다. 후반에 여전히 다카하시가 선두였지만 권태하가 선두와의 차이를 점점 20m, 10m로 좁혔나갔고 그 뒤를 김은배가 뒤따랐다. 언덕 코스에서 권은 다카하시를 따라붙더니 결국 선두가 되었고 김은배도 쏠살같이 다카하시와 쓰다 선수를 제치고 2위로 통과했다.

이 대회에는 남승룡도 참가해 김은배의 레이스를 도왔다. 남승룡은 1931년 양정고보 1학년 때 조선신궁대회 마라톤에서 김은배에 이어 2시간 45분대의 기록으로 2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학비 부담 때문에 양정고보를 그만두고 도쿄에서 고학을 하다 LA 올림픽대회 최종 선발대회에 참가한 것.

경기 초반 김은배는 좋은 컨디션으로 달려 선두그룹을 유지했다. 그룹이 흩어진 후반부에도 지구력을 보이며 최선두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32km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 서서히 선두 레이스에서 뒤처지고 말았

다. 그러나 경기 내내 레이스를 뒷받침한 남승룡의 덕인지 김은배는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더니 37km 지점에서 속도를 내 앞서가는 선수들을 하나씩 따라잡아 결국 권태하에 이어 2위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3위는 4년 전 암스테르담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6위를 한 쓰다였다.

이 대회 후 일본육상경기연맹은 3위를 한 쓰다를 선수 겸 코치로 임명하고, 올림픽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1위 권태하와 2위 김은배를 지도하도록 했다.

처음 참가한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6, 9위 쾌거

한국인 최초로 올림픽대회에서 입선한 선수는 1932년 제10회 LA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6위를 차지한 김은배였다. 올림픽대회 개인 종목의 경우,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대회 이전까지는 6위까지 표장하는 것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이었다. 3위까지는 메달과 상장을 수여했고, 4~6위까지는 입상자로 분류해 상장만 주었다.⁰¹⁵

1932년 8월 7일 LA 올림픽대회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 경기에는 김은배, 권태하와 일본의 쓰다가 코치 겸 선수로 참가했다. 그런데 쓰다는 경기 전 두 선수를 불러 마라톤 경기 도중 절대로 자기를 앞서서 달리지 말라고 강력히 지시했을 뿐 코치로서 어떠한 작전지시도 하지 않았다.

경기는 오후 3시 30분 한창 무더운 LA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열렸다. 15개국 28명의 선수들이 수만 관중의 환호를 받으며 일제히 스타디움을 빠져나갔다. 우승 후보로 꼽히던 권태하는 초반부터 쓰다의 지시를 무시하고 앞서 달렸

⁰¹⁵ 두산백과 참조.

다. 조선 선수들을 자신의 페이스메이커로 이용만 하려 한 쓰다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버페이스를 한 탓에 8km 지점에서 왼쪽다리에 심한 경련이 일어났다. 경기가 중반에 이르자 오른쪽다리마저 경련이 일어났다. 체력적 한계 속에서도 권태하는 2시간 42분 52초를 기록하며 9위를 했다. 얼마나 지쳤는지 피니시라인을 10m가량 남기고 실신하여 10분간 누워 있다가 가까스로 일어나 기다시피 들어와 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기도 했다.

권태하는 3개월 사이에 마라톤 코스를 세 번이나 완주하는 저력을 보이며 올림픽대회에서 9위를 했고, 김은배는 2시간 37분 28초로 6위, 쓰다는 5위를 했다. 비록 조선 선수들이 6, 9위에 그쳤지만 처음 참가한 올림픽대회에서 거둔 성과로는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 신문들은 김은배의 입상과 권태하의 비장한 완주를 대서특필했다. 다음은 김은배가 양정고보 교지에 상세히 밝힌 당시 마라톤 경기 상황이다.

오후 3시 반 스타디움으로부터 스타트했다. 선수는 28명인데 2열 중 대로 서서 나는 후열에 끼여 있었다. 환호성 속에 스타트하자 아르헨티나의 자발라 선수는 곧 4m 앞서서 뛰고 나는 13위 정도로 뛰고 있었다. 운동장을 두 바퀴 돌 때 권태하가 쪽 빠져나간다. 나도 따라 나갔다.

조금 후 우리 3인은 일단으로 됐다. 권태하, 쓰다는 원기 있게 뛰었다. 나는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 권태하, 쓰다에게서 떨어지게 됐다. 7마일 반부터 무의식 상태에 다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 상태로 9마일에 있는 두 번째 음료 설치대에 도착했다. 나는 여기서 포도즙을 마시고 뛰기 시작했다. 9~14마일 구간은 태평양 연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향하여 뛰는데 언덕도 있고 연안에는 집이 없는 평야며 가로수가 펼쳐져 있다……8마일 근처에서 다시 원기를 회복

했으나 다음 직코스에서는 완전히 쇠약해져 빈사 상태였다.

응원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전방의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이를 악물고 12마일 반까지 달린 나는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16마일 반 근처에서 나를 앞지른 아르헨티나, 미국 선수를 추월하여 유유히 달렸다. 17마일 반 지점에서 멕시코 선수를 추격하여 앞지르니 겨우 9번째였다.

이 선수는 1만m에서 7위를 한 우수한 선수이며 마라톤에도 능한 선수다. 이같이 전력을 다해 19마일 반 지점에 도착하니 불과 넉 달 전인 4월 3일 경인역전대회 때 부상한 왼쪽 다리에 경련이 일기 시작했다……이 언덕 중간쯤 가니 머리를 들고 대단히 피로한 듯 뛰고 있는 권태하 선수가 보였다. 나는 스피드를 내어 권 선수에게 접근하였다.

내가 여기서 “땀시다.”라고 말하니 “위장이 아파 틀렸다.”며 비참한 안색을 보였다. 나는 할 수 없이 권 선수와 헤어져 선행자를 추적하였다. 23마일 지점에서 체코의 헬거를 제치고 24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미국 선수 메트켈손마저 가뿐히 따돌렸다. 이때 승패의 운수는 이미 결정되어 6위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올림픽 기념탑에 마라톤 귀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수만 관중의 박수 소리를 받으며 골인했다.’⁰¹⁶

⁰¹⁶ 양정 100년사 재인용.

장거리의 왕자 유장춘과 투척 왕 유약한

LA 올림픽대회가 끝나고 1934년 4월 조선육상경기연맹이 조직되었다. 같은 해 제10회 마닐라 극동선수권대회에서 당시 장거리의 왕자로 꼽히던 유장춘이 1만m에서 1위, 1500m에서는 2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냈다. 그는 앞서 4월에 열린 이 대회 일본 예선 1만m에서 31분 20초 2를 기록했다.

유장춘의 기록은 그로부터 24년 뒤에야 깨졌다. 1958년 5월 도쿄 아시아경기 대회에서 한승철이 30분 55초 6을 기록해, 한국의 1만m 기록은 처음으로 30분대에 돌입했다.

1934년 8월 제20회 전일본중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양정고보가 우승함으로써 육상경기 사상 커다란 성과를 이뤘다. 또한 1935년 제8회 메이지신궁대회에선 투척 종목의 유약한·안영한·인강환, 100m와 200m의 김유택 등이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대회를 석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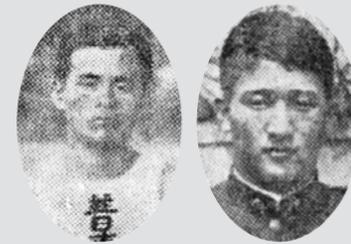
특히 유약한은 원반던지기에서 1926년부터 1934년까지 8년 동안 여덟 차례나 신기록을 갈아 치우며 41m 72까지 던졌다. 그의 기록은 13년 뒤인 1947년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안영한이 44m 43을 던지면서 깨졌다.

창던지기에서도 유약한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그는 1933년 8월 조선-만주 대항전 예선에서 58m 80을 던졌는데, 이 기록은 이후 31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다. 1938년 10월 조선신궁대회 포환던지기에서 12m 64로 우승한 안영한은 1941년 7월 도쿄 유학생-경성 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경성 대표로 나서 13m 61을 기록했다. 그의 기록은 광복 전 우리나라 포환던지기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다.

세단뛰기 김원권 국제대회 우승

1937, 1938년에는 배재고보 육상경기부가 전일본중등학교육상경기선수권대

해머던지기 기록 경신 이끈 안영식, 백승욱, 인강환



백승욱(사진 왼쪽), 인강환(사진 오른쪽)

1930년대 중반 국내에서 투척 종목은 안영식의 독무대였다. 안영식은 경성치과 의학전문학교 재학 시절인 1934년 10월 조선전문학교체육연맹 주최 제9회 육상경기대회까지만 해도 투척 종목에서 일본 학생들에게 밀려 4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1935년 6월 6월 경성치전과 일본 규슈치전 대항전에서는 원반던지기 33m 45, 해머던지기 30m 24로 1위를 하며 해머던지기에서 처음으로 30m를 넘는 기록을 세웠다.

안영식은 1935년 9월 경기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조선신궁경기대회 경기도 예선 해머던지기에서 36m 49로 조선신기록을 세우고, 이어 10월 제11회 조선신궁경기대회 해머던지기과 창던지기에서 각각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1935년 10월 22일 조선체육회 주최 제16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에서도 해머던지기 1위를 했으나 기록은 32m 83으로 평소보다 저조한 편이었다. 1936년 6월 조선학생육상경기연맹 주최 제3회 조선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육상경기대회 해머던지기에서는 38m 81로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안영식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백승욱과 인강환이라는 맞수가 등장했다. 백승욱은 양정고보, 인강환은 배재고보 출신으로 양교가 초기 한국 육상경기에서 최대 라이벌이었던 점도 두 선수의 대결을 더욱 뜨겁게 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조선 1차 예선 해머던지기에서 배재고보 재학생 인강환(28m 44)은 체신국 소속의 일본인 마쓰자키(33m 30)에 이어 2위를 했다. 그해 8월 조선학생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한 제3회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교 선수권대회에서도 인강환은 45m 25로 중등학교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고, 백승욱은 44m 55로 대회신기록을 세웠지만 인강환의 기록에 가려지고 말았다.

1937년 6월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일반인과 학생 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인강

환이 35m 21로 1위를 했고, 백승욱은 19m 40의 저조한 기록으로 5위에 그쳤다. 인강환은 그해 8월에 열린 전일본중등학교대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원정을 가서 해머던지기에서 45m 54로 우승했고, 이 대회에서 배재고보는 트랙과 필드 종목 모두 합쳐 종합우승을 했다.

그러나 그해 9월 펼쳐진 제13회 조선신궁경기대회 경기도 예선에서 보성전문 학교 소속으로 나온 백승욱이 39m 18로 1위를 했고, 인강환은 29m로 5위를 머물렀다. 이어 백승욱은 10월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40m 54로 조선신기록을 세웠고, 인강환은 36m 71로 2위였다. 그해 11월 조선체육회 주최로 경성운동장에서 제18회 종합경기 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인강환이 37m 28로 1위를 했지만 여전히 백승욱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1938년 인강환이 백승욱이 재학 중인 보성전문에 입학하자 선후배 간 대결로 이어졌다. 그해 6월 26일 일본에서 열린 제1회 전일본학생동서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서군으로 참가한 보성전문의 백승욱이 해머던지기에서 42m 77로 1위를 했다. 같은 날 경성에서 열린 제5회 조선학생대교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인강환이 43m 68을 던져 대회 및 학생신기록을 세우며 기록에서 백승욱을 앞질렀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7월 3일 전조선육상경기협회와 조선학생육상경기연맹이 공동주최한 제3회 일반대학생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백승욱은 43m 87로 1위, 인강환은 43m 80으로 2위를 했다. 불과 7cm 차의 아슬아슬한 승부에 관객들은 손에 땀을 쥐었다.

육상경기는 기록경기임에도 두 선수의 치열한 1위 다툼에 관심이 집중됐고 그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기록도 크게 향상되었다. 1938년 10월 조선신궁경기대회 예선을 겸한 경기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백승욱은 42m 61로 1위, 인강환은 3위를 차지했다.

결국 1938년 연말 발표된 각 종목별로 '학생 육상경기 5걸' 해머던지기에서 백승욱 43m 87, 인강환 43m 80, 배재 김형도 36m 92, 고등농림학교 강영선

35m 26, 배재 권역옥 33m 18이 선정되었다. 백·인 두 선수 아래로는 기록 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두 선수의 라이벌전은 1939년에도 이어졌으나 백승욱의 우세가 계속되었다. 1939년 6월 제4회 일반 대 학생 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1위 백승욱이 41m 80, 2위 인강환 38m 85였다. 9월 조선신궁경기대회 예선에서 1위 백승욱 46m 1, 2위 인강환 44m 30이었다. 조선신궁경기대회 본선에서 백승욱과 인강환은 또다시 나란히 1,2위를 했는데. 기록은 백승욱이 46m 76, 인강환 45m 41이며 둘 다 조선신기록이었다. 백승욱은 이후 일본에서 열린 메이지신궁경기대회 조선 대표로 참가해 해머던지기에서 43m 83으로 3위를 했다. 조선의 대표적인 단거리주자인 김유택이 동아일보 1939년 10월 23일자에 기고한 '메이지신궁 육상 예상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백승욱 군은 중학시대부터 많은 활약을 하여온 선수이다. '해머'에 강적 인강환 선수와 늘 접전을 하여왔지만 근래에 백군의 독무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인강환 군의 원기 회복은 백군의 기록을 일층 더 향상시킬 것이다.

1940년 이후 인강환이 두각을 나타냈다. 그해 10월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46m 94로 백승욱의 기록을 넘어선 뒤 광복 후 1946년 6월 조선육상경기협회가 주최한 제1회 조선-미군대항 육상경기대회에서 인강환은 49m 01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당시 2,3위는 백승욱, 안영식이었다. 이어 10월 제1회 조선올림픽대회(전국체육대회 전신)에서 인강환은 39m 51로 1위를 했다. 인강환은 1947년 10월 제2회 조선올림픽대회에서 자신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한국기록인 53m 44를 작성했다. 이는 그해 세계최고기록이기도 했다. 인강환은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와 제2회 마닐라 아시아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했고, 제17회 로마 올림픽대회에는 감독으로 참가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지냈다.

회에서 연거푸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어 1938년 5월 조선-만주대항대회에 참가한 장신의 이장완은 110m 허들에서 15초 2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훗날 1973년 5월 아시아친선대회에서 김영희가 14초 8을 기록할 때까지 무려 35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다. 1939년 7월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보성전문 학생인 김원권이 세단뛰기에서 15m 34로 우승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후 그는 1941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관동학생선수권대회에서도 자신의 최고기록인 15m 86으로 우승했다.

세단뛰기는 1932년 LA 올림픽대회에서 일본의 난부 추헤이가 15m 72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선 일본의 다지마 나오토가 16m로 금메달을 땀다. 이를 감안하면 김원권의 기록이 당시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939년 8월 경성고등상업학교에 진학한 김유택이 조선-간사이학생대항전 100m 경기에서 10초 5라는 당시 세계적인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배재고보 시절이던 1936년 9월 조선-만주대항육상경기 조선 예선에서 10초 7로 달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100m에서 11초 벽을 깼다. 김유택의 100m 10초 5의 기록은 1966년 제5회 아시아경기대회 대표 선발경기에서 석탄공사의 정기선이 10초 3의 기록을 세울 때까지 27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다.

이후 트랙이 합성 포장을 하고 전기계시를 한 뒤 원호단 소속의 서말구가 1979년 멕시코시티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세운 10초 34가 오랫동안 100m 한국기록이었다. 이 기록은 2010년 6월 7일 제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김국영(안양시청)이 10초 23으로 달려 31년 만에 깨졌다.⁰¹⁷

⁰¹⁷ 1926년 6월 조선-만주 대항대회 100m 예선에서 양정고보의 김장율이 일본의 야노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세운 11초 8을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최초의 한국기록으로 삼고 있다. -고두현, 1998, p12.

200m의 경우 양정고보의 이을형이 1934년 8월 전일본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에서 22초 6으로 달려 22초대에 돌입했다. 이후 1939년 6월 일반-학생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한운섭(일반)이 21초 9를 찍어 22초의 벽을 허물었다.